

워싱턴주 동포간담회

▲ 대통령 인사말

거듭, 참 반갑습니다. 제가 (내일) 과테말라로 갑니다. 부담이 좀 되긴 합니
다만, 큰소리 먼저 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유치하는 지역마다 각기 한 가지씩 장점이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국민표’입니다. 제가 가서 좀 모자라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원체 잘하고 준비 잘 해냈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저도
모자라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수준만큼 대우 받는 것

크게 바보 노릇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값은 그 나라 국력만큼 쳐서 받게 돼
있고 국민 수준만큼 대우 받습니다. 저도 대우를 잘 받을 것입니다.

시애틀에 못 와 봐서 빛이 있었습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임기 마치는
가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일부러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가긴
가야 하는데 시애틀 회장님도 한국 오실 때 마다 꼭 어음을 내 보이면서
아직 결제 안했다고 일깨워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빛 갚으러 왔습니다.

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엄청 살기 좋은 곳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만 바다가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여기도 바다가 무척 잘 생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트도 가득 떠 있고.(웃음) 전체적으로 숲이나 거리가 모두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시애틀이 옛날 인디언 추장 이름을 따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추장이 협상 끝에 백인들이 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허락하면서 보냈던 편지를 저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글이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용으로 썼던 글이어서 참 감동적으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내려다보니까 생각도 나고 어디쯤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추장이 많은 걱정을 했지만 자연이 파괴된 것은 아닌 거 같고 자연과 사람이 적당히 어울려 살고 있지 않은가, 제가 본 인상이 그렇습니다.

총영사께서 사전보고를 하는데 시애틀 동포들은 대체로 마음이 부드럽대요. 비교적 편안한 편이라고, 또 워싱턴 대학에 한국학과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교민회관도 스스로 협력해서 잘 되어가고 있고 다른 어느 곳보다 모범적인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원칙, 투명 등 사회적 자본 확충 긍정적

권 여사가 저에게 이분들한테는 한국이 올해 넘어가면 바로 국민소득 2만불 들어가고 경제가 좋아졌고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이런 얘기도 좋지만 그 보다는 한국이 보다 더 국민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잘 대우받고 사회가 투명하고 원칙적인 사회, 이런 예측 가능한 사회로 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했는데요. 돈은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조금 전 말했던 사회적 자본 가치는 숫자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

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서 걱정스럽지만, 그렇게 달라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니까 반갑기만 했는데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공연까지 보면서 전체 분위기가 ‘이분들이 한국 국가의 영역을 넓혀가는 분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병풍이 쳐져 있었습니다. 조그만 한옥에서는 버거운 물건인데 병풍으로 칸막이하는 모습 보면서 21세기를 위해 조상들이 준비해준 좋은 선물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노래 듣고 한국말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지배자들이 영역을 넓히기 위해 백성에게 무기 들려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내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기도 하고 물론 보호도 해주지만, 어떻게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랬던 시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와서 여기에 와서 한국 사람이 사는 땅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우러져 사는 곳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계셔서 한국 사람의 활동 영역이 넓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제 경험으로는, 어디 나가서 그 나라 지도자와 대화할 때 제가 받는 대우를 국력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사람 수준만큼 또 저희가 대접을 받습니다. 비록 그 사회를 지배하는 수준이 아니라도 그 사회 규범이라든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존경 받는 수준만큼 말을 해주고 대우해 줍니다.

국교상 이해관계를 놓고 협상할 때를 예로 들면, 한국 사람들의 사업 경영을 편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을 상대 국가가 허용하느냐 여부는 여기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그 사회 규범을 잘 준수하고 생활의 모습이 모범적이어서 존경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구한 것을 승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나 독립국가 연합 지역에 가면 동포들이 많이 삽니다. 무지 고생했고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 나라 규범체계 때문에 예외를 인정할 수 없지만 어지간하면 들어주고 그때 반드시 그 칭찬까지 해줍니다. 한국 사람은 일등국민이라고, 최대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미국 사회는 쟁쟁한 사람이 살고 있어서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하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살고 있는 모습, 땀 흘린 결과가 국력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일은 여러분이 한국에 자주, 항상 가보고 싶으시죠? 갔다가 돌아올 때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갔다가 돌아오면 기분 좋고 항상 생각하면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아이한테 나라, 말, 문화를 꼭 잊어버리지 않게, 생각이 저절로 드는 한국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보기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살았던 경우나, 적어도 불만을 가졌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는,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이 모국인 것이 불만스럽지 않고 손해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연이 있다는 것이 기분만이 아니고 생활에도 도움되고 한국말을 잘 하는 것이 직업 영역에서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패 떠나 기대와 희망이 있는 정치돼야

2002년 대통령 뽑을 때 의견이 달랐을 것입니다. 제가 됐을 때 ‘아이고 죽었다, 큰일 났구나’ 생각한 사람이 좀 계셨을 겁니다. 한국 안에는 더

많았습니다. ‘큰일 났구나, 5년 동안 무슨 일을 할 지 모르겠다’ 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신문에다가 마구 썼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게 큰일은 안 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는 정치가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과제가 같은 값이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 하늘이 노래지지 않는 그런 정치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보는 사람도 생각을 바꿔갈 필요가 있죠.

스포츠 게임을 볼 때 우리 구단이 이기면 좋지만 다른 구단이 우승하면 하늘이 노래지지는 않습니다. 정치도 그런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해외 동포에게도 국적 있는 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질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싸우지는 마십시오. 누가 졌던 이겼던 같이 모여서 맥주 값 내고 이긴 사람은 먹고, 함께 털고 기뻐하고 새로운 기대를 거는 정치시대. 이런 것이 한국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약속을 드리고 여러분 말씀 듣고 대답할 것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 대통령 마무리 발언

하느님께서 제가 대통령되기 전까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되고 난 후 확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두고 나면 어찌실는지 모르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미우나 고우나 부득이 사랑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디가면 비가 오다가도 그쳐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북미 강원도민회 회장이 평창 유치 기원 플랜카드를 펼치며 “2014년 동계올림픽은 평창이다, 평창이다” 라는 구호를 외친 것에 대해) 강원도민회장님과 여러분이 퍼포먼스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리하면 혼났습니다. 앞으로는 혼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편안하게 서로 얘기하고 자유롭게 가까이 얘기하고, 그렇게 대통령과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

이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친근한 대통령의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히 열지 못했던 아쉬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준비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어떻든 의미 있고 뜻있는 말을 다짐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한국 내 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농촌에서 이주한 분들이어서 도시에서 살고, 농업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 스스로 농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이 생산한 것이면 비싸도 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이익보다 농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국민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길이었지만 꼭 가야할 길이라서 FTA 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한미 FTA,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선택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각기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떻든 조금 빠르건 늦건 간에 안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5년 빠르다고 해서 ‘이번에 하지 말고 5년 뒤에 하자’고 선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이 맞아서 하자고 마음먹었을 때 해야지, 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 3년만 늦추자하고 지나가면, 그 상대 마음이 또 그대로 일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처녀총각 시집 장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5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경제 협정입니다. 미국이 뭐 답답해서 기다리라고 한다고 기다리겠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만일, 지금 그럴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우리가 5년 뒤에 하자고 미뤘는

데 또 가까운 나라들이 먼저 미국과 FTA를 하면 그 때는 한국이 달려와서 한다고 끼워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보고를 받은 이야기인데 멕시코가 FTA 하자고 했는데 사정이 안돼서 조금 불안해서 뒤로 미뤘습니다. 제가 대통령 된 뒤에 FTA 하자고 했더니 멕시코 대통령이 저더러 현대차 공장 세워주겠냐고 했습니다. 제가 현대 공장을 마음대로 이래 짓고 저래 짓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것은 기업 경영의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됩니다. 안 굴러갑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지만 실무자들이 계산이 안 나오니까 늦어지는 것이죠. 아무 때나 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득이 이 시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도약의 기회

그런데 이것이 부득이한 거냐. 전 세계 개방도가 한국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수출해서 먹고 살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능동적으로 개방해 나가지 않으면 경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위축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두려워하면서도 이상 더 개방을 늦출 수 없어 부득이 개방을 했습니다. 부득이 했던 모든 개방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피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개방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체질이 강해지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 그와 같은 영업 형태를 한국 기업이 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방하면 다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편하지 않습니다. 경쟁의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더 연구하고 혁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다 힘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이 강해지는 만큼 낙오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적은 수라 하더라도 새로운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낙오하지 않게 또 다른 대책으로 패자부활전을 가지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FTA를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손을 내민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 보기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FTA 관련된 전략을 잘 짜서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EU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을 빨리 선택한 것입니다. EU와 FTA도 박차를 가해서 가려고 합니다. 농업 피해는 부담이 적고 기대되는 이익은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대 축과 한국이 FTA를 하면 동북아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속에서 갖는 위상은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시장에서, EU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경제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TA가 한국에게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도약하는 기회입니다.

장차 중국과 FTA를 생각할 때 농업의 구조조정은 시급합니다.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된 것입니다. 농업도 빠르게 구조조정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경쟁력을 높여 가자는 것입니다. 97년 외환위기로 강제로 구조조정해서 힘없는 사람 몰아내는 느낌으로 다가왔지만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긍정적인 개념으로 다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 구조개혁을 위해 한미 FTA는 피할 수 없는 계기이기도 하고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WTO로 인해 농업이 손해 본 것으로 돼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95년부터 예산을 짜기 시작하면서 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농업이 엄청나게 구조개혁이 됐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농업을 그만둘 사람은 새길 찾고 연세 많으니까 부업농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경쟁력 있는 농민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기술 분야 농업에서는 어

면 나라 농산물과도 경쟁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동안에 농업 지원이 정부 돈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참여정부가 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FTA 반대 아닌, 경쟁력 강화 모색하는 게 현명

한국에서도 비준이 걱정되고 미국도 비준이 걱정되는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부 영역이 불편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는 영역은 FTA가 아니라도 이미 어려워져 있고 그냥 가도 혁신 없이는 더 어려워집니다. FTA 때문에 촉진될 수 있겠죠. FTA 반대하는 것이 그 영역에 종사하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국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정책을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농사를 지어본 사람입니다. 농민의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인데, 미국의 농민은 일부지만 한국의 농민은 전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전략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도전적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FTA를 포함한 개방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전 국민의 경쟁력을 살려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전 국민의 경제가 살아나갈 때 부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비준, 한국 국민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전략적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전략적인 반대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반대했던 분들도 힘을 모아서 FTA의 부정적 효과를 확대시키고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으면 좋겠습니다.

고향분 전화하면 잘 말해 주십시오. FTA 잘되면 한국도, 여기도 잘 됩니다. 시택, 친정 잘 사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정부가 나서는 것이 적절하고, 어떤 일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풀뿌리가 목소리를 낼 때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역량을 결합해 일할 때도 중요합니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 세 영역의 역할이 있고 상호협력 할 것입니다.

외교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남은 정보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부처, 정부기관 사이에 공유하는데 외교부가 큰 맘 먹으면 기업,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체계를 갖춰질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도 정부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 는 유행일 뿐...우리 실정 맞춰 확충할 건 확충해야

한국에 대한 홍보 역시 해가고 있습니다. 외교 역량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최근에 외교부 인력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98년에 많이 축소해서 일부 늘려도 복구가 안 됩니다. 작은 정부 얘기하는데, 유행입니다. 유행은 유행이고 한국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은 늘어나고 있고 복지 국가적 서비스 영역이 커지고 있고 국제적 교류 부문에서 할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쓸 사람은 써줘야 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공무원 숫자가 3분의 2 정도, 프랑스와 비교하면 공무원 수는 절반입니다. 많다, 적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질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만 국가 서비스가 아니고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공공의 영역이고 사적 영역인지 끊는 것은 어렵습니

다. 전체적으로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확실히 적은 것은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든 공무원이 제공하든, 서비스는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많습니다.

명령은 줄어들고 통제는 줄고 서비스는 늘어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외교 영역에서도 인력이 필요한 만큼 하되 대신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기풍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기풍이 중요합니다. 지나 5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기풍, 존중하는 기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민주주의 기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외교부 업무, 재외동포 업무도 그런 방향으로 서비스가 모자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기경보기가 매입 결정됐습니다. 1조3천 억원 규모라고, 별다른 선택이 어려운 도입입니다만 조기경보기 결정했을 때 한국 신문 봤습니까. 시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1조 군수 조달 결정하는데 아무 소리 없었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장성 진급했지만 잡음 들어보셨나, 안 들어 보셨죠? 지금도 군수 조달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개혁 20년계획, 20년 전부터 해야 한다고 말만하고, 하려고 보면 각기 손해 보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높은 자리 숫자가 줄어듭니다. 앞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다 짜서 법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군 장비 생산은 많아집니다. 국회에서 시비가 없습니다. 그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성취목표, 극복과제가 대선 공약돼야

제가 민주주의 대통령 맞죠? 적어도 정권의 영역에서 한국이 투명해진 것 맞습니다. 대통령이 법 지키니까. 적어도 공직자가 국민을 겁주거나 국민

을 깔보고, 깔아뭉개고 이런 일은 없다.

저는 점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맞게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때문에 엄청 당했는데 아직까지 경제파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파탄 맞나? 저도 기분이 안 좋죠. 그리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한국 사회 이렇게 갑니다. 굳이 제가 했다고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정상으로 앞으로 가게 되죠. 다음 대통령 뽑히겠죠. 그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있을 것입니다.

5년 전에는 개혁, 통합을 선거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너무 넓죠, 다른 사람이 새로운 정치,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개혁과 통합 중에 정치 영역의 개혁, 통합이 필요하다고 해서 뭉뚱그려 새로운 정치로 내걸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죠. 이 시기 한국이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가 뭐냐.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가 뭐냐. 한국이 꼭 뛰어 넘어야 할 후진적 요소가 뭐냐, 이게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되고 국민이 선택하고 당선된 사람은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번 대선에는 저나 상대방이나, 저는 새로운 정치, 반듯한 나라, 상대는 새로운 정치를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반듯한 나라, 규범이 존중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측이 가능한 사회, 투명하고 공정해서 예측이 가능한 사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이번에는 그런 공약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 공정. 충분히 한국이 공정하고, 민주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 언론은 제 수준에 와 있는가. 단언 کن데 경제는 잘 갑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잘 갑니다. 잠시 실수해서 한순간 휘청하고 그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감감

한 일 당해도 한국 경제는 잘 갑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고생 안 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한국 교육, 2백 개 대학 안에 3개 밖에 없다.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분야에서 한국 교육은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보고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인적자원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장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경쟁질서 속에 들어가서 발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잘 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 · 언론 · 복지 선진화 국민 요구수준 높아지길

중등학교 교육에 대해 말이 많은데 많은 국가가 한국의 중등학교 교육을 배우려고 합니다. 고칠 점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 결과는 한국의 교육이 그만큼 수준에 와 있습니다. 문민정부 교육개혁안을 국민, 참여정부 열심히 했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러기 아빠, 교육 환경이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고사 부활, 결국 이 시대의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해소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해주기 바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이 아직 정치선진화가 안됐는데 우리 국민이 정치선진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언론도 선진화가 안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낮은 것이 걱정입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이 심각한데 국민의 요구가 높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